

#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주님의 은혜 넘치네 주는 존귀하신 분 / 주 광대하시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 이 땅에 오직	다같이
대표기도		유건이
*성경봉독	민 35:9-34	민현진
말씀	도피성을 예비하라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응답찬양

##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 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 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주세요

# 도피성을 예비하라(민 35:9-34)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도피성 관련한 말씀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과, 들어가 직후에 반복해서 강조하셨다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자 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사회 정의의 수단 이상의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도피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명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살인할 의도가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11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48개 성읍 중에 6곳을 뽑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그 중 세 성읍은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은 요단 서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서서 이스라엘의 어느 땅에 사는 백성이든지 보복자로부터 피해 숨기 용이한 장소에 지정하셨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비의도적인 살인자를 구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살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말씀합니다. (16-23절) 즉, 사람을 죽일 만한 위험한 물건으로 살인한 경우나, 명백한 악의로 살인한 경우는 죽일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경우만 비의도적 살인으로 보았고, 이런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을 해할 만한 위험한 물건에 의해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의도성 살인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대의 과실치사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도피성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고백하고, 장로들은 그 사람이 비의도적 살인인 경우에는 받아들여 그 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그가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성의 주민들은 그를 피의 보복자에게 넘겨주어서도 안 되고, 속전을 받고 고향에 보내주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만족되어야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경우는, 비록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사실이 있다면 무죄판결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들은 자유함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살인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했을까'입니다. 율법은 살인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그 공동체가 죽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출21장) 특히,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제단에서 잡아내려서라도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이런 율법의 정신을 '동해동형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남에게 해를 입힌 만큼 본인도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만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마음,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마음,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려는 마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율법을 처음 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비고의적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할 도피성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출21:13) 따라서, 도피성은 살인죄를 금하실 때부터 이미 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도피성을 예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인간 구원의 마음은 도피성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눈여겨 볼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죄는 땅을 더럽힌다'는 표현입니다. (33절) 아담이 범 죄하였을 때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성경은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씀합니다. (창3-4장) 특히나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로 인해 더럽혀진 땅은 오직 가해자의 피로만 속함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3절) 이것은 죄에 대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 원리를 깨고, 죄로 인해 더럽혀진 땅을 정결케 할 수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값을 대신 갚아준다는 '대속' (Redemption)의 개념이 적용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 말씀산책

이렇게 속죄함에 있어 너무 중요한 대제사장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들로 변질됩니다. 더이상 인간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의 역할은 진정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게 되신 것입니다. (히4:14) 따라서 이 원리를 도피성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즉, 도피성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자유함을 받듯,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도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의해 속죄의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도피성에서는 비의도적 살인자만 속죄함을 받았습니.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한 자도 십자가 밑에 거하면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께서 마음의 법으로 죄의 기준을 높이신 것이 도리어 속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죄 있는 자, 마음으로 살인한 자, 심지어 실제 살인한 자도 주님께 나오도록 품어주는 도피성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용납'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가르치고 치리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용납을 버리면, 교회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살인죄를 지어 본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우리를 살인자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소는 성경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도피성입니다. 그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그러에만 살니다. 도피성 되신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또 다른 죄인의 도피성이 되도록 서로 용납합시다. 그것이 도피성의 의미를 아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서, 또 다른 살인자가 피해 오는 것을 비방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2. 우리 공동체를 도피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시기 원하시나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 파송찬양

##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기간: 5/28-9/24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오은비)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정호)



현장팀 신청 QR

일대일 양육 훈련 동반자 모집

문의 : 추재욱/ 이순희 집사 (soonhoe.lee@gmail.com)

2023년 드림키즈 써머캠프 교사 지원

캠프기간 : 7월 10일~28일(3주간)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 문의 :정지혜 집사 (jeehye518@gmail.com)

2023 드림키즈 여름 사역

어린이 VBS: 6/5(월)~6/9(금)  
문의: 각 드림키즈 부서 사역자

생명의 삶 6월호

권당 5불

환송

김정민, 노지윤

교역자 동정

이강현 목사 휴가(6/6~6/27)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